

2021년 2월 25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의회와 연준의 부양 기조 지속 기대로 상승

파월 의장, “인플레는 느리게 진행돼 목표까지는 3년이 걸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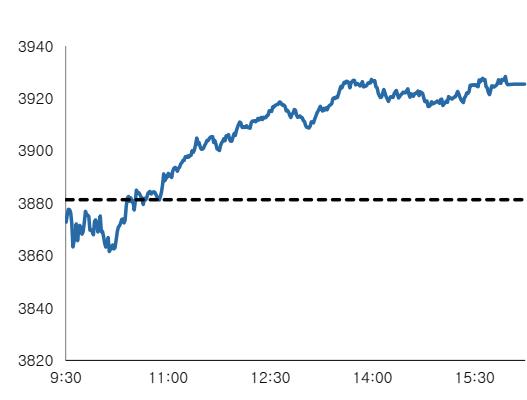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파월 발언, 추가 부양책

미 증시는 중국의 디레버리징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하락 출발. 그러나 파월 의장이 지속적인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 하원이 26 일 1.9 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처리할 것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반등에 성공. 특히 부양책 기대로 에너지, 산업재, 레저, 여행 등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 반면, 대형 기술주는 규제 우려 속 하락하는 차별화 지속(다우 +1.35%, 나스닥 +0.99%, S&P500 +1.14%, 러셀 2000 +2.38%)

미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미 의회 추가 부양책 관련 소식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은 하원에 출석 통화정책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 “경제는 여전히 도전 받고 있으며 연준은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을 언급. 더불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느리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고 주장. 발언 내용은 대체로 전일 상원 청문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중국의 디레버리징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 시킴. 더불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이날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며 인플레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한 점도 우호적인 영향

한편, 미 하원이 1.9 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26 일 처리한다는 소식도 지수 상승을 견인.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주 상원에서 이를 처리. 특히 3 월 14 일 추가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을 앞두고 있어 다음 주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지급 하기에 관련 일정에 주목. 물론 상원 처리는 협상이 필요하지만 중국 디레버리징 우려를 완화 시켰다는 점에서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 여기에 FDA 의 J&J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과 다음 주 자체 없는 출시. 바이든의 반도체 관련 행정명령 서명 임박, 국제유가 상승 등 여러 호재로 산업재, 에너지, 레저, 여행, 반도체, 금융 업종이 강세. 반면, 대형 기술주는 규제 이슈가 부각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는 지속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994.98	-2.45	홍콩항셍	29,718.24	-2.99
KOSDAQ	906.31	-3.23	영국	6,658.97	+0.50
DOW	31,961.86	+1.35	독일	13,976.00	+0.80
NASDAQ	13,597.97	+0.99	프랑스	5,797.98	+0.31
S&P 500	3,925.43	+1.14	스페인	8,269.60	+0.21
상하이종합	3,564.08	-1.99	그리스	774.80	+0.17
일본	29,671.70	-1.61	이탈리아	23,098.15	+0.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4% 급등

웨스턴디지털(+5.03%)은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된 데 힘입어 상승했다. 마이크론(+4.86%)은 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 관련 저전력 메모리 출시 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조사에 대한 행정명령 임박 소식이 전해지자 AMAT(+5.94%), 램리서치(+6.09%) 등은 물론 인텔(+3.39%) 등도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4% 상승했다. 보잉(+8.12%)는 기체 결함이 레이시온(+4.97%)이 제작한 엔진의 피로 때문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했다. 특히 부정적인 내용이 유입되었음에도 강세를 보인 요인은 사고 직후 빠른 대응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더 컸다는 평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월 등이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고 언급 했으나 경제 전망과 관련 긍정적인 언급은 결국 금리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점이 부각 되자 JP모건(+1.76%), BOA(+2.42%)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J&J(+1.34%)는 코로나 백신 긴급승인 임박 소식에 강세를 보였으며, 부킹닷컴(+3.57%), 카니발(+2.08%) 등 레저, 여행 업종은 물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액손모빌(+3.00%) 등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6.18%)는 ARK 이노베이션 ETF가 전일 급락 당시 적극적인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마이크로스트레지(+18.29%)는 추가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 했다는 소식을 기반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93%	대형 가치주 ETF(IVE)	+1.48%
에너지섹터 ETF(OIH)	+6.32%	중형 가치주 ETF(IWS)	+1.51%
소매업체 ETF(XRT)	+5.29%	소형 가치주 ETF(IWN)	+2.73%
금융섹터 ETF(XLF)	+1.94%	대형 성장주 ETF(VUG)	+0.66%
기술섹터 ETF(XLK)	+1.53%	중형 성장주 ETF(IWP)	+0.6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32%	소형 성장주 ETF(IWO)	+2.07%
인터넷업체 ETF(FDN)	-0.16%	배당주 ETF(DVY)	+1.73%
리츠업체 ETF(XLRE)	+0.4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8%
주택건설업체 ETF(XHB)	+0.6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3%
바이오섹터 ETF(IBB)	+0.97%	미국 국채 ETF(IEF)	-0.14%
헬스케어 ETF(XLV)	+0.69%	하이일드 ETF(JNK)	+0.02%
곡물 ETF(DBA)	+1.38%	물가연동채 ETF(TIP)	-0.08%
반도체 ETF(SMH)	+3.22%	Long/short ETF(BTAL)	-2.5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76.20	+3.64%	+8.24%	+22.34%
소재	478.86	+0.91%	+2.85%	+4.24%
산업재	787.82	+1.93%	+3.66%	+6.97%
경기소비재	1,335.27	+0.74%	-2.63%	-2.76%
필수소비재	667.68	-0.03%	-1.33%	-2.11%
헬스케어	1,335.20	+0.66%	-1.59%	-2.85%
금융	556.51	+2.01%	+4.20%	+12.14%
IT	2,363.21	+1.51%	-1.62%	+0.14%
커뮤니케이션	238.11	+0.44%	-0.66%	+4.08%
유틸리티	303.92	-1.15%	-3.24%	-5.81%
부동산	240.38	+0.55%	+1.63%	+2.7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64% 하락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08.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의 디레버리징 이슈가 부각 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 부담 이슈가 부각된 중국 백주산업이 급락하는 등 밸류 관련 이슈가 부각 된 점도 약세 요인이다. 이러한 중국 이슈가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며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의 지속적인 부양책 기조 확인,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 처리 기대 등은 전일 하락을 뒤로 하고 한국 증시 상승 기대를 높인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까지는 3 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해 인플레 압력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를 완화 시켰으며, 시장은 경제 정상화 이슈로 전환 된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힘입어 미 증시에서 에너지, 산업재, 여행, 레저, 금융 등의 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웨스턴디지털(+5.03%)가 반도체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목표주가 상향 조정으로 급등 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24% 상승을 견인 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0%~1.5% 내외 상승 출발 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 지표 개선 Vs. 기관투자자 심리 지수 둔화

1 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전월(88.5 만건)이나 예상(85.5 만건)을 크게 상회한 92.3 만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가 소폭 둔화 되었을 뿐 대부분 지역이 전월 보다 증가했다. 판매 중간가격은 35 만 3,100 달러에서 34 만 6,400 달러를 기록했다.

2 월 스테이츠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지수는 전월(100.8)에서 91.9로 크게 둔화 되었다. 특히 유럽이 16.6p 하락한 78.1로 아시아도 17.5p 하락한 98.2로 발표되며 이를 주도해 유럽과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북미 지역은 2.8p 하락한 93.3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재고 증가 불구 생산 둔화 이슈로 강세

국제유가는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재고가 129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해 490 만 배럴 감소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였으나 상승했다. 문제는 원유생산량이 11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정제유 재고가 500 만 배럴 감소한 점, 설비 가동률이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 등이 상승 요인이었다. 더 나아가 경제 정상화 기대에 따른 수요 증가 가능성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지표 호전을 기반으로 강세 출발 했으나, 파월 연준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여타 환율에 약세로 전환했다. 특히 경제 정상화 언급 및 목표 인플레이션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발언한 점 등이 주요 요인이다. 한편, 파월 발언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자 엔화가 약세폭을 확대했으며,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 및 경제 정상화 기대로 10년물 금리가 장 초반 2020년 2월 수준인 1.4%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고, 인플레이션 목표에는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자 상승분을 반납했다. 5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7배)을 소폭 하회한 2.24배를 기록하고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59.7%)을 하회한 57.1%를 기록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제 정상화 기대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곡물시장은 대두가 남미의 날씨로 수확이 지연되자 상승했다. 더불어 옥수수와 봄밀 등의 파종 면적의 감소 가능성이 확산 된 점도 강세 요인이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7%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3.22	+2.51	+3.37	Dollar Index	90.034	-0.15	-1.01
브렌트유	67.04	+2.55	+4.20	EUR/USD	1.2171	+0.17	+1.10
금	1,797.90	-0.44	+1.42	USD/JPY	105.88	+0.60	+0.01
은	27,928	+0.67	+2.09	GBP/USD	1.4141	+0.20	+2.05
알루미늄	2,184.50	+1.75	+3.29	USD/CHF	0.9066	+0.17	+0.86
전기동	9,308.50	+1.11	+10.95	AUD/USD	0.7972	+0.77	+2.85
아연	2,846.50	-0.28	+1.08	USD/CAD	1.2509	-0.62	-1.52
옥수수	557.00	+0.81	+1.13	USD/BRL	5.4156	-0.47	+0.05
밀	685.50	+2.28	+5.79	USD/CNH	6.4474	-0.20	+0.18
대두	1,425.75	+1.22	+2.96	USD/KRW	1112.20	+0.14	+0.42
커피	137.25	-0.76	+7.73	USD/KRW NDF1M	1107.50	-0.27	+0.0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388	+4.60	+11.73	스페인	0.389	+2.70	+10.20
한국	1.853	-3.90	-0.90	포르투갈	0.276	+2.50	+9.10
일본	0.126	+0.10	+2.70	그리스	1.012	+8.60	+20.40
독일	-0.304	+1.10	+6.40	이탈리아	0.685	+4.20	+1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